



NEWS

II V

IDI E&C

연합뉴스

< | 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알 >

Q U

뉴스홈 | 최신기사

<올림픽> 서틀콕의 승부사 김종수 감독

송고시간 | 2008-08-17 22:55

 **천병혁 기자**
기자 페이지

<올림픽> 베드민턴 혼복 금메달

(베이징=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008베이징올림픽이 계속된 17일 베이징 공과대학 체육관에서 벌어진 베드민턴 혼복식 결승에서 인도네시아 노바 위디안토-리리아나조를 꺾고 금메달을 딴 이용대-이효정조가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보여주고 있다.

zji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17일 밤 베이징올림픽 베드민턴 혼복식 결승에서 이용대-이효정(이상 삼성전기) 조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순간 이동수 코치가 뛰어 들어가 선수들을 껴안았지만 김종수(48) 감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선수들의 손에 끌려 코트로 나온 김 감독은 이용대, 이효정과 차례로 포옹한 뒤 담담하게 돌아서 나왔다.

그리고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김 감독은 체육관 밖 주차장에서 일본대표팀 사령탑을 맡고 있는 박주봉 감독의 축하 인사를 받은 뒤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GS SHOP
특급 혜택 받으세요! ◆ (5,000) (10,000)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큰 승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한 대 썩 피곤 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아예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만큼 마음 고생도 심했고 스트레스도 많았기 때문이다.

김종수 감독은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거쳐 2001년 대표팀 사령탑으로 발탁됐다.

1010회
오늘의 방문객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 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효자 종목’으로 불리던 배드민턴이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노골드’의 치욕을 당한 뒤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섰던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최적임자로 김 감독을 선택한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듯 김 감독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금 1개, 은 2개, 동메달 1개를 일궈냈고 이번 베이징에서도 금 1개, 은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해 배드민턴 강국의 이미지를 지켰다.

역대 대표팀 감독 중 최고 성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배드민턴의 메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과거 한국은 박주봉-김문수, 김동문-하태권, 김동문-라경민 등 확실한 ‘우승 보증수표’가 있었지만 베이징올림픽 대표팀은 역대 최악체라고 평가될 만큼 에이스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김 감독은 올림픽을 불과 40여일을 앞둔 지난 6월말 횡령협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국가대표 감독 자격이 일시정지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배드민턴협회는 보름여 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사령탑에 복귀시켰지만 이미 심한 마음고생을 앓고 난 뒤였다.

그런 악재 속에도 평소 치밀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김 감독은 이번 대회를 철저히 준비했다.

주심과 부심은 물론 라인선심의 배정순서를 하나 하나 따지며 불이익을 피해갔고, 심지어 경기장 에어컨 바람의 세기까지 측정하며 중국의 ‘장난’을 방지했다.

그런 그였기에 12년만에 혼합복식 금메달, 12년만에 여자복식 은메달, 또 남자복식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재진(밀양시청)·황지만(강남구청) 조의 동메달을 건널 수 있었다.

김 감독은 이용대·이효정이 금메달을 따고 나자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 될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거취 문제는 한국에 돌아가서 협회 임원들과 최종 상의해야겠지만 이제는 지쳤다.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혔다.

지난 7년간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배드민턴 강국의 면모를 지켜 온 김종수 감독은 모든 것을 털고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승부사’가 필요한 협회가 그를 선뜻 놓아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shoeless@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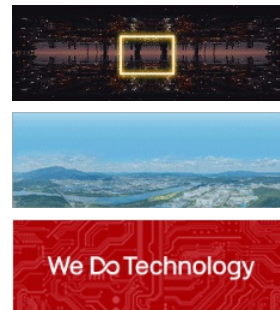
🔗 관련기사

-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12년만에 금메달(종합)
- <올림픽> 배드민턴 첫 금, 영·호남서 ‘환상 탄생’
- 올림픽-배드민턴 금빛 스매싱..황금연휴 ‘피날레’
- <올림픽> 이용대 “런던에선 남자복식 금도 따겠다”
- <올림픽> 여자복식 銀 아쉬움 털어낸 이효정의 금 스매싱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7 22:55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 채 두 눈만 열쫓쫓...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쥔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7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1
💬 137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2
💬 60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3
💬 59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4
💬 5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5
💬 38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뭐하고 놀까? #홍 →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총

계약사/제휴문의